

사회

영산강 자전거도로 '암흑 길'

<동림동 산동교~광산구 첨단종합운동장 구간>

조명시설 아예 없어 범죄 발생 우려 잇단 민원 불구 광주시-익산청 '뒤틀짐'

주말인 지난 13일 저녁 8시께 영산강 자전거길(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광산구 첨단종합운동장)...

를 고려중이지만 예산문제와 함께 허가권이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라...



지난 13일 밤 자전거를 탄 한 시민이 수풀이 우거지고 어두워진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랜턴에 의지해 달리고 있다.

광주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영산강 자전거 도로가 완공된 이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율 광주·전남 '최고'

이용섭 의원 국감자료

광주와 전남지역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15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6개 시·도 중 2009년 대비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9.4%를 기록했고 이어 광주 3.3%, 전남 2.5% 순이었다"고 밝혔다.

오늘 날씨, 맑은 뒤 흐림,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오후에 구름 많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재가동 영광원전 발전출력 낮춰

변압기 가스농도 증가로...원전측 "고장 등급 아니다"

11일 만에 발전을 재개한 영광원전 5호기(가압 경수로형 100만kW급)가 이틀만인 15일 자동 갑발(발전 출력을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 고장으로 이날 가동을 재개하려던 신고리원전 1호기(가압 경수로형 100만kW급)도 기계결함으로 발전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교육감, 비리 직원 구명 탄원서 논란

학부모연합 "형평성 상실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사 특채 비리를 주도한 시교육청 인사과 직원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성적 조작 채용비리 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교육감의 이중성을 보는 명백한 일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어이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고소·고발했고 중징계로 교육계를 떠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이었는데도 교육감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제1부 제1회(56)씨와 전 인사과 직원 이모(4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여순사건 유가족 50여명 국가상대 첫 손해소 제기

64주년 맞아 추모행사

여순사건의 여수지역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 64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제64주년을 맞아 '진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다채로운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순례 등이다. 특히 손해배상 기자회견은 19일 열 예정으로 소송에는 여수지역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신비의 섬 제주 탐방' (Mystery Island Jeju Exploration)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tour information.